

신슈대학 도서관 직무연수 보고서

— 慶尙大學校 中央圖書館 朴美淑 —

2012년 사서로서 가장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신슈대학 도서관의 연수이다. 2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도서관 생활에서 여느 직원에 비해 유독 해외연수 및 출장경험이 많은 편이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나에게 많은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사서로서 나를 지탱해 온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일본 신슈대학 연수 역시 사서에게 연수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모든 계획수립에서부터 연수훈련까지 직접 도맡아 하면서 어느 연수보다 애착이 많이 갔다. 무엇보다 연수 첫날부터 의미 있는 일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인터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양 도서관간 교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웠다. 또한 도서관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의 활동을 대학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은 어느 때 보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를 전공하는 도서관장의 박식함에 인터뷰의 맥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더불어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를 일본 지역언론에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계기도 되었다.



연수를 통하여 수서정리, 주제별 이용자교육방식, 서비스형태, 분관운영방식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대학당국과 도서관이 어떻게 긴밀히 서로 협력(Collaboration)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예산확보, Fundraising, 대형 프로젝트 구축에 따른 업무공유방식 등 대학본부와의 협업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국내 대학도서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ROI(Return on Investment) 사례와, 오랜 기간 열정과 관심을 쏟아 매진한 전자정보 구독방식, 의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서비스도 놓칠 수 없는 관심대상이었다. 또한 SOAR, Kotani Collection 그리고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유일한 섬유학부 도서관(Textile Science & Technology Library)은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가장 주목할만한 내용중의 하나는 바로 SOAR 시스템이다. 이미 국내외 대학도서관에서 기관리포지터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리포지터리는 도서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차원은 물론 대학단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S-Space가 개발되었다. SOAR 시스템은 처음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대규모시스템이었다. 신슈대학 기관 출판물정보는 물론, 전체 연구자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더 나아가 교수 및 연구자의 연구생산물들을 하나의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구축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신슈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연구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Web of Science라는 세계적인 인용평가 데이터베이스를 링크하여 각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도 매우 우수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대학당국이 예산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또한 시스템을 완성하기까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학당국과 도서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는 사실은 우리 도서관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섬유학부 도서관은 연수 전부터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국내대학에는 섬유학부 도서관이 없으며, 일본 내에서도 유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대학교가 위치한 진주지역은 전통적으로 실크산업이 유명하며, 실크관련 산학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크의 품질 또한 우수하여 진주지역 특화산

업이기도 하다. 최근 대학(연구)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섬유학부 도서관은 나가노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잘 반영한 분관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섬유학부 도서관 사서의 안내가 매우 인상적이고 훌륭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물론, 섬유학부 도서관 전반을 두루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프로다운다. 영어 구사능력 또한 뛰어나 설명이 매우 자연스러워 우리 도서관의 외국인 안내와는 확실한 차별화를 느낄 수 있었다.

농학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장이 직접 안내를 하였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직원에 따르면 연수안내자료까지 직접 작성하고 준비하였다니 대접 받는 느낌마저 들었다. 생명과학을 전공하여서인지 각종 데이터베이스 활용에도 매우 앞선 감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교수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정보 활용방안 혹은, 평가DB를 통한 교수역량평가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도 SCI, JCR, Scopus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연구정보의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구업적의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일본 대학 역시 우리와 비슷한 상황임을 알수 있었고 농학부 도서관장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나마 나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한편 시오지리 시립도서관(Shiojiri City Library) 방문에서 나는 잠시 잊고 지냈던 사서로서의 태도와 철학, 이용자서비스 마인드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늘 업무를 하면서 깨어있는 사서가 되고자 다짐하고는 있지만 오랜 일상에서 오는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시립도서관 방문 자체는 내게 큰 의미를 주지는 못했지만 시오지리 시립도서관장의 도서관 운영방식은 사뭇 나에게 작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서관에도 경영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최근 도서관의 경영마인드 도입은 여러 대학도서관에서 이미 보편화된 운영기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ROI(Return On Investment), Six Sigma 이론을 도입하는 대학도서관도 있다. 시오지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용자를 배려하는 경영마인드가 돋보였다. 도서관장이 직접 도서관 설계에서부터 깊이 참여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추구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방식에도 사서정신이 강하게 들어가 있음을 느꼈다. 시오지리 시립도서관 방문은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진정한 이용자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가노니시 (Nagano Nish) 고등학교 International Course 과정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색다른 경험이기도 했다. 사실 신슈대학 연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인 일이기도 했다. 폭넓은 정보전달을 위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수집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지 고등학교 교사와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발표자료에 충실하고자 애썼다. 리허설까지 거치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일본 고등학생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단지 한국 고등학생들의 교육과 생활방식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신슈대학 연수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나의 주안점은 미시적 관점 (Micro point) 이 아닌 거시적 관점 (Macro point) 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따라서 세세한 업무내용을 배우기 보다 하나의 큰 틀에서 우리 도서관과 뚜렷한 차별화가 무엇인지, 또 신슈대학 도서관의 강점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신슈대학 도서관 연수는 과히 성공적이라고 내 스스로 자부하고 싶다. 특히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업무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연수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5 개의 분과를 포함하여 전체 도서관을 연수하는 과정에서 직원 모두가 본인의 업무를 스스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 사실 외국어로 업무를 외국인에게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수를 영어로 진행하다 보니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모두가 사전, 혹은 구글 번역기를 찾아가며 끝까지 스스로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특히 일본 연수생에게 기본적인 본인 소개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우리 직원들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무엇이든 대충하지 않고 세심하게 처리하는 강한 책임의식 등은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였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SOAR 시스템이다. 연수 후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및 도서관 직원 그리고 대학당국에도 SOAR 시스템 개발배경 및 대학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에서도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하는 업무가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마케팅과 홍보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나나” 라는 도서관 마스코트를 제작하여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도서관 저널을 발간하여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대내외에 체계적으로 알리는 일, 점점 비중이 높아가는 전자정보 구독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하여 이용통계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정기적으로 대학당국에 보고하는 일 등은 매우 적극적인 홍보방식으로 여겨졌다. 대학 내에서 도서관이 합목적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전략이 필수적이며,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